

담화분석을 통해 재조명하는 그라이스(Grice)의 협력 원칙

- 이기적 자아의 이타적 실현 -

이소영(서울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발화는 단지 사태의 참, 거짓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라고 하는 오스틴(Austin)의 견해, 그리고 언어의 사용이 그 의미라고 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독자적으로 발표되어 향후 언어연구의 방향을 결정짓는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역시 1960년대 후반, 그라이스(Grice)는 발화의 의미와 연관성을 결정짓는, 표면적인 발화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원칙으로서 협력의 원칙을 제안하면서 향후 화용론적 언어연구에 있어 근간이 되는 업적을 남긴다. 향후 이 협력원칙은 많은 도전과 제안을 받으면서, 언어활동의 근본적인 원칙과 동기에 대한 탁월한 설명력을 인정받으며 오늘날까지도 화용론적 언어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은 다각도에서 재조명되고 비판, 보완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사실 그의 이론의 가진 한정적인 설명력은 그 자신에 의해서 이론의 설립과 함께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고, 따라서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에 대한 제반 비판적 시각은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에 의해 의도되어진 보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라이스의 협력 원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는 언어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중에서도 특히 담화행위에 있어서, 개별적인 발화들 간의 의미 연관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판단에 입각해서 협력원칙을 근간으로 한, 행위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담화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¹⁾.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많은

1) 여기에서 행위이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행위란 특정 목적을 가진 의식적인 인간행동이라는 관점(Harras 1983: 11-18)으로 담화에서 나타나는 발화행위들을 고찰하고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담화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발화행위들의 표면적인 복잡함과 의미 파악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발화간에, 그리

비판과 보완의 제안을 거치면서도 변함없는 설명력을 인정받는 것은, 그의 이론이 언어 외적인, 행위이론적인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협력원칙은 제한된 언어상황, 즉 가장 효율적인 정보전달이라고 하는 특정한 언어적 상황에 한정되어서 구상되어진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것은 또한 포괄적인 행위이론인 그의 이론이 구체적인 적용을 시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단순히 최대한 효과적인 정보교환 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일반적인 대화상황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 그 적용의 방법과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언어적 자료로서, 연구자에 의해 녹음, 전사된 실제 담화의 기록을 제시하고 경험적인 분석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그라이스의 협력원칙

1968년 H. P. Grice는 그의 논문 “Logic and Conversation”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합리적으로 가정되어지는 의사소통 상의 요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는 칸트의 네개의 논리적 범주 *logische Kategorien*에 준하여²⁾ 다음과 같은 네개의 기본 격률을 설정하였다.

- (1) *Maxime der Quantität*
- (2) *Maxime der Qualität*
- (3) *Maxime der Relation*
- (4) *Maxime der Modalität*

고 서로 대화상대자 간에 주고받는 담화행보 간에 연관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담화참여자들이 일정한 담화목적 을 가지고 있으며 발화행위들이 이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 결여된 담화연구의 경우 발화행위들의 표면적 특성에 한정된 연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2) Kant (1996: 111)을 보라.

즉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화자의 기여가 필요한 만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도로 정보적이어야 하고, 사실이 되도록 해야 하며, 연관성이 있어야 하면서 또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서로 연관없는 불연속적인 발화들의 연속체가 아닌 것은 그들이 “어느정도 최소한 협력하고자 애쓰는 것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라이스는 위에 열거한 네가지 기본 범주를 하나의 대 원칙, 즉 협력원칙 Cooperative Principle⁴⁾으로부터 유도되어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이 원칙을 알고 있고 준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그라이스의 주장은—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다양한 반론과 부딪히게 된다. 우선 가장 자주 다양하게 제기되는 질문으로, 정말로 의사소통하는 참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협력적이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에서 참여자들이 각자 준수하고 또 상대가 같이 지켜주기를 요구하고 가정하는 사항들이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범주에 다 포괄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겨나는 것도 필연적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라이스는 스스로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즉, 협력원칙과 그 하위 범주들은 의사소통에 기저에 깔려 있는 행위원칙들이지 발화표면상에서 실현되는 규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원칙적인 전제가 있기에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발화를 수용할 때 기저에 이러한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표면적인 발화의미에 함축된 사실상 의도된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라이스는 이 현상을 일컬어 대화함축이라고 하고 있다. Levinson (1983: 105)은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을 어떻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일컫고 있다. 인간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이론에는 그 포괄적인 설명력 때문에 자칫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이 제한되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라이스가 이론 설립시에 설정했던 의사소통상황이 “최대한 효과적인 정보의 교류”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사용 일반적으로

3) Grice (1968: 66): “..to some degree at least cooperative effort”

4) Grice (1967: 66-67): “Make your conversational contribution such as is required, at the stage at which it occurs, by the accepted purpose or direction of the talk exchange in which you are engaged”

적용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Sperber & Wilson (1986)은 그라이스가 제안한 하위 카테고리, 즉 네 개의 격률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실제로 분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 하에, 이들을 하나의 격률, 즉 Relevance라는 격률로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결국 하나의 원칙의 하위 카테고리라기보다는 기본 원칙인 협력원칙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여진다. Relevance 개념은 협력원칙의 하위개념이라기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그라이스의 협력의 개념 자체와 많은 면에서 상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Kummer (1994: 116-120)는 그라이스의 격률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아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라이스의 이론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어서 대화 상대자 상호간의 복잡한 관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형식화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보완요구와 수정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러한 이론들은 결국 그라이스 자신에 의해 그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된 바 있는 제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라이스 자신이 이 격률들을 설정한 의사소통 상황을 한정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Grice: 1967)⁵⁾. 그라이스가 처음부터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고립된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특정언어가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언어공동체를 상정하고 이 이론을 고안했다는 것은, 그의 격률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Be polite”와 같은 격률이 추가되는 의사소통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데서 분명해 진다. 그라이스의 행위이론적인 통찰은 따라서 일반적 의사소통이론으로도, 또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일반 행위이론적인 대원칙 하에,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는 네개의 격률을 상정했다는 것은 이 이론의 이러한 융통성과 넓은 적용범위를 설명해 준다. 그라이스의 대화원칙은 결

5) Grice (1967: 69): “The conversational maxims, however, and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s connected with them, are specially connected (I hope) with the particular purposes which talk (and so talk exchange) is adapted to serve and is primarily employed to serve. I have stated my maxims as if this purpose were a maximally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this specification is of course too narrow, and the scheme needs to be generalized to allow for such general purposes as influencing or directing the actions of others. ”

국 협력을 목적의식적으로 파악, 대화상대 간의 행동방침 설정과 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위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폭넓은 적용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원칙의 대전제인 과연 인간이 협력적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Hintikka(1886)는 대화게임 Dialogspiele은 원칙적으로 정보구하기 게임 Informationssuchspiele이라고 하면서, 대화참여자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제한된 수단—시간, 정보 대화의 소재 등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므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언어적 의사소통과정 혹은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자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가.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어느 한 쪽의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개의 격률이 재구성되고 변형,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이 이론의 구성시에 함께 고안된 것이지만, 협력의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연 대화에서 나타나는 인간행동이 협조적인가 이기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또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토대로, 실제 대화에서 이 원칙과 격률이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최수 딜레마

인간이 본성에 의해 다른 존재를 돕는 존재인가, 천성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온 주제이다. 저 유명한 자연선택설을 통해 경쟁관계에 놓인 생물체들의 치열한 생존투쟁을 종의 진화과정으로 서술한 다윈 (1809-1882)은 그의 저서 인간의 기원에서 뜻밖에도 인간은 서로 돕는 존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Die geringe koerperliche Kraft des Menschen, seine geringe Schnelligkeit, der Mangel an natuerlichen Waffen etc. Werden mehr als ausgeglichen... durch seine sozialen Eigenschaften, welche ihn dazu fuehrten, seinen Mitmenschen zu helfen und

Hilfe von ihnen zu empfangen”.

반면 Thomas Hobbes (1588-1679)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외롭고, 비참하고 사악하고 야성적이고 따라서 오래살지도 못한다고 단정짓고 있다. 앞서 그라이스에 대한 Hintikka의 반론, 다아윈과 홉스의 상반된 견해는 그러나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각자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추구와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로서 게임이론에서 사용되는 죄수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죄수 딜레마 Gefangenendilemma는 1950년대 이래로 본래 게임이론에서 사용되어 왔던 가설로서,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상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은 구성원이 다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음직한 상황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다. 이 이론의 원래 버전은 이러하다: 두 명의 공범이 잡혀서 각각 격리된 채로 감방에 갇혀 있다. 취조과정에서 이들은 각각 제안을 받는다. 만일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2년형을 받는다. 둘 다 범행을 자백하면 각각 4년형을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자백을 하면 자신은 풀려나지만 상대는 5년형을 받는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성적으로 생각되는 상황은 자명하다. 둘 다 자백하지 않고 2년형을 받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는 이득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반면 상대방이 자백했는데도 내가 자백하지 않았을 때 내게 오는 손실이 너무나 크다. 더구나 상대방이 자백을 하든 자백을 하지 않든 자신은 자백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상대방이 자백을 했으면 나도 자백을 해야 내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고,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일 내가 자백을 하게 되면 나는 당장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 결과는 다시금 자명하다. 두 사람 다 자백을 하고, 두 사람 전체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동시에 자백을 하고 4년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죄수 딜레마는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봉착하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소통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자명하다. 본 논문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죄수 딜레마를 담화분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인 개인이, 협력을 하는 것이 쌍

방에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성적 판단에 의해 상대와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물론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언어학적이라기보다 넓은 의미에서 행위이론적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탐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담화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상대와 협력하여 함께 각자의 담화목적에 달성해 가는가, 아니면 한정된 수단을 놓고 상대와 경쟁하여 자기 목적을 추구해 가는가에 대한 물음은 담화분석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에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물음이기도 하다. 하나의 발화를 놓고, 이 발화가 상대와의 경쟁 속에서 한정된 수단인 시간, 정보, 발언권 등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게임상황 속에서의 하나의 행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협력적으로 대화의 목적에 달성해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식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개체로서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에 따르는 행위패턴을 보인다는 죄수 딜레마는 부정할 수 없는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대화란 한정된 수단을 쟁취하기 위한 참여자들간의 경쟁이라는 견해는 여기서 강한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Ridley (1997: 56)은 비생산적인 경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파탄을 맞게 되는 사회조직 및 생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f everybody could be trusted not to steal cars, cars need not be locked and much time and expense could be saved in insurance premiums, security devices and the like. We would all be better off. But in such a trusting world, an individual can make himself even better off by defecting from the social contract and stealing a car.[...]Tropical rain forests, bizarrely, are the products of prisoner's dilemmas. The trees that grow in them spend the great majority of their energy growing upward towards the sky, rather than reproducing. If they could come to a pact with their comeditors to outlaw all tree trunks and respect a maximum tree height ten feet, every tree would be better off. But they cannot."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과연 개인들 간의 경쟁에 의해 형상화되고 지배되는 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위의 죄수 딜레마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많은 석연

치 않은 점들을 남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친절, 공익을 위한 개인적 이익의 포기 혹은 무조건적인 이해와 관용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오히려 이기적 개인들로 구성된 인간사회를 결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들이라는 인상을 준다. 담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적인 담화상황을 관찰해보면, 경쟁이 목적이 되는 담화라기보다는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적인 담화라는 가정이 더 직관과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 저녁 식단에 대해 의논하는 어머니와 딸의 대화에서는 자기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경쟁적인 의도보다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대화의 시간 자체를 즐기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같이 산보하는 상황을 즐긴다는 외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 행위를 하는 상대자들의 대화는 역시 효과적인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대화상황들에 아무런 목적이나 형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대화에도 분명히 일정한 형식과 제한이 있으며 이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편안하지 않은 대화상대자로서, 혹은 터부를 어긴 대화상대자로서 일정한 사회적, 심리적 억압을 받게 된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가. 이기적으로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개체가 대화라는 상호작용 속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상호 간에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상호협력적인 담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행동이론 전문가들은 그 해답을 되풀이되는 죄수 딜레마 iterierte Gefangenendilemma 상황에서 찾고 있다. 일회적인 상호작용에서는 개인의 최대 이익과 상대의 이기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 작용의 필연적인 비극적인 결과가 예측되지만, 그러한 작용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고 할 때, 결과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한 번의 상호작용에서 이기적 목적을 최대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 만났을 때 상대에게 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남의 횟수가 반복된다면 결국 반복된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더 이상 협조를 구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이기적 자아들의 반복적 만남

이러한 가설을 실제 실험을 통해 입증하기 위해 1970년대에 미국 미시건대학의 정치학자 Robert Axelrod는 반복되는 죄수딜레마를 테마로 한 경연대회를 수 차례 개최하였다. 참가자는 각 전문가들로부터 고안된, 이 경연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대회의 목적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매번 얻은 점수의 합계가 참가자 중에서 가장 높게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죄수 딜레마는 매회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다소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는데, 그 형태는 다음 도표 1과 같다.

<도표 1>

Schema: Gefangenendilemma

		Spieler2	
		kooperiert	verweigert
Spieler1	kooperiert	Spieler2 - 3 Punkte	Spieler2 - 5 Punkte
		Spieler1 - 3 Punkte	Spieler1 - 0 Punkte
	verweigert	Spieler2 - 0 Punkte	Spieler2 - 1 Punkte
		Spieler1 - 5 Punkte	Spieler1 - 1 Punkte

즉, 자신과 상대가 동시에 협조할 경우에 다같이 3점씩을 얻고 상대가 배신하는 상황에서 혼자 협조한다면 자신은 0점, 상대는 5점을 얻게 되며, 역의 경우 점수도 역으로 계산된다. 두 참가자 모두가 서로를 배신한다면 둘 다 1점씩의 점수를 얻게 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출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무한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캐나다의 게임이론가인 Anatol Rapport라는 학자가 제출한 매우 간

단한 전략, 즉 눈에는 눈 (Tit for Tat) 전략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전략이 첫 번째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열린, 즉 많은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전략을 겨냥해서 그를 이기기 위해 고안 되어진 상태에서 열린 두 번째 경연대회에서도 이 전략이 우승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실험결과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경험, 그리고 대화상황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눈에는 눈 전략, 소위 “Tit for Tat” 전략은 뜻밖에도 매우 간단한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전략은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만났을 때 상대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그에 상응하여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지난번 만났을 때 상대가 협력했다면 나도 협력한다, 상대가 배신을 했다면 나도 배신한다는 것이다. 서로 끝없이 배신하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초기 조건은 협력으로 정한다. 즉, 처음 만난 상대한테는 일단 무조건 협력한다. 일상언어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배신한 상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가를 치루게 하고 내게 협조하는 상대에게는 아낌없이 협조하며, 배신했던 상대가 협조로 돌아서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문제삼지 않고 다시 협조하는 행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원칙이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만남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것은 비단 게임 이론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회구성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인간 행위 전반에 적용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은 굳이 행동이론적인 배경을 들추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그라이스의 대화 원칙, 즉 협력의 원칙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바탕 위에서 다시금 고찰해 보았을 때에는 역시 인간의 행동원칙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담화에 참여하는 각 참여자가 한정된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진 담화상대자와 경쟁하는 것이라는, 그라이스의 협력이론에 대한 반론은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근본적으로 반박되었고 할 수 있겠다. 담화참여자는 물론 각자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담화에 참여하지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협력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본 논문에서 실제 대화의 분석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 상담대화의 경우, 상담원의 가장 본래적인, 혹은 이기적인 목적은 대화를 통해 상담자를 돕는 행위라기 보다 방송매체를 통한 공개적인 상담대화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능한 상담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원은 상담대화가 상담자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보다는, 이 대화가 마찰없이 진행되고 최소한 겉보기에는 참여자간의 합일점을 찾은 상태에서 끝맺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복잡한 심리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담자에게 할애되는 10 이내의 상담대화시간으로는 그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는 작업조차 용이하지 않을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의 이러한 대화목적은 대부분의 경우 무리없이 달성된다. 상담자 역시 상담원의 이러한 목적설정을 잘 알고 있고 그에 협조하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도움이 없이는 상담원이 설정한 목적의 달성은 불가능하고, 두 참여자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상담원은 상담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상담자의 대화목적에 파악하고 그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방송매체를 이요한 상담대화에서 상담자의 대화목적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담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매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단순히 방송에 출연하는 것, 혹은 누군가와 자기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나 상담자는 자신의 대화상대자인 상담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상담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목적 달성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대화참여자는 모두 상대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대화목적에 가지고 있고, 상대의 대화목적 역시 자신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인식 하에서 서로 상대의 협력을 구하며 동시에 스스로 협력한다. 결론적으로 담화참여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협력하지 않고는 담화자체를 성립시킬 수가 없다. 침묵하고 반박하고 비웃고 말다툼하는, 일상적인 의미로 “비협조적”으로 보이는 행위들은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정도 협력하는 행위들이다. 상대방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한, 대화에 참여해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그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협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수업시간에 갑자기 일어나 노래를 부른다든가 전화를 하는 행동을 할 경우와 대비시켜 생각해 보면 분명해 진다. 조용히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학생은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이라는 담화형태에서 청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의 형태 중의 하나이지만 그라이스가 제안한 격률에서는 이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요구되는 정보의 질과 양, 관련성, 표현방식에 대한 격률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청자로서의 대화참여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라이스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진 담화가 어떠한 상황에서 행해지는가에 따라서 격률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침삭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다양한 담화에 그의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격률에 있어서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다음 장에서는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을 실제 담화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5. 협력원칙을 담화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이 구체적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실현되는 의사소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 원칙은 직접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담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담화의 분석에 결정적인 설명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라이스가 자신의 논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모든 의사소통 상황이 결국 구체적인 언어공동체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담화의 일부분들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라이스가 예로 든 대화의 예들은 실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복잡한 대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연구목적에 맞추어 구상된 가상의 대화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 담화분석에 적용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대화를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이 대화분석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극껏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 녹취 방식은 단지 대화상대자간의 의사소통내용을 최대한 간소하게, 효과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쓰여진 가장 간략한 방식을 택한 것임을 우선 밝힌다.

(1) “강제입원” 중에서⁶⁾

R: ... mein Bruder ist weit entfernt und ist vielleicht auch nicht so ganz nicht in der Lage, das zu tun. Und ich hab aber inzwischen dringend zwar meine Enkelkinder mit...

B: Wie alt sind Sie?

R: Bitte?

B: Wie alt sind Sie?

R: Oh, wie alt bin ich jetzt (lacht)? Ich wurde dreiunddreißig, ja dreiunddreißig.

B: Hm, Hm.. Und wenn Ihre Mutter sagt, dass sie bespitzelt wird, äh.. so zu sagen.. was sagt sie, wozu das dient, was soll gegen sie unternommen werden?

위 예문은 피해망상증상이 있는 상담자의 어머니에 관한 비교적 긴 상담 대화의 일부이다. 예문은 상담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이 상담대화 전체를 살펴 보면 상담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일상적인 의미에서 “협조적”이면서도 다소 초조한 인상을 주고 있다. 상담자는 지나치게 많은, 그러나 상담에 별로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매우 친절한 태도를 유지한다. 상담원은 그러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다소 의아하게 여기고 있음을 위의 대화에서 단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대화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손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상담원은 여기서 상담자의 말을 끊으면서 갑자기 그의 나이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음성만으로 판단했을 때 그의 나이가 결코 손자를 둘 나이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6) 녹취에 쓰인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B는 상담원(Berater)을 R는 상담자(Ratsuchender)를 의미하는 약자로 사용하였다. (lacht)와 같이 괄호 안에 표현한 말은 웃는다, 기침한다, 더듬는다 등 대화참여자의 비언어적, 혹은 언어수반적인 행위 표현을 표시한 것이다. 그외 밑줄친 부분은 두 대화참여자의 말이 겹치는 구간을 뜻한다.

데, 상담자는 실제로 그의 나이가 33세라고 대답해서 상담원과 청취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상담원은 일단 맥이 끊긴 대화를 그 전에 말해지던 주제로 돌아가서 계속하려 하지 않고 주제를 돌려서 자신이 의아하게 여기는 점으로 옮겨가 버리는데 이는 역시 상담자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던 부분을 그다지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담자가 처음에 말하고 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그의 발화가 협조적이지 않았고 상담원은 그것에 대해 불만족했기 때문에 그 발화를 중간에 중단시켜 버리고서도 다시 계속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발화에서 상담자는, 피해망 상증에 시달리고 주위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어머니를,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가족 구성원도 돌봐 줄 위치에 처해있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스스로 믿고 있는 내용이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정보적이면서도 조리있게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연관된 내용만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한다. 상담원에게 있어서 그의 장황한 설명은 필요이상이고 주제와 별 관계가 없으며 조리있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들도 아닌 것이다. 두 사람은 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각자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각자 이기적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애쓴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각자가 취하는 대화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 대화의 상황과 목적달성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각 대화참여자는 따라서 자기 자신의 시각, 판단기준에 의한 협조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 따른 협조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담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방이 나의 대화협조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것은 상대방이 담화에 참여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하는데에 근간한다. 담화란 목적지향적인 인간행동이기 때문에 그 담화의 발생과 진행,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 담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적인 것이다.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은 담화참여자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는 협력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을 필요로 한다. 흔히 그의 이론이 화자 중심으로 치중하여 의사소통에서 청자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담화의 변증법적이고 역동적인 생성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지적이 시사하는 바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본다. 다음에 보여 주는 대화의 단면은, 위의 대화와 동일한 대화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상담자가 상담을 청해온 사실상의

진짜 이유인, 어머니의 강제입원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을 중심으로 따 온 것이다.

(2) “강제입원” 중에서⁷⁾

A: Und der sagt mir, das mach' ich nicht.

L: Ja, ja, das ist eine ganz ganz schwierige Situation, das sind, wo ist, äh, sozusagen, fast keine richtige Möglichkeit, sich zu verhalten, gibt. [...] ,wenn Ihre Mutter zu einem solchen Termin mitgehen würde, dass es auch dafür ist, dass Sie rückschlafen können, nicht?

A: Tscha, ja das stimmt schon, aber..., na ja, ich kann's probieren, also sie in einem Familientherapeut so eine Einrichtung wäre, dann richtiger oder.

L: Ich vermute mal, zunächst, dass eher ein, ein, ein Psychiater oder, oder ein sozialpsychiatrischer Dienst, also eine Einrichtung, die auch sich psychiatrisch auskennt, hier richtig wäre, es gibt auch solche sozialpsychiatrischen Dienst, die Beratungsstellen, wo jemand z. B. nach Hause kommt, nicht, das ist vielleicht ein einfacher, dass Sie mal verabreden, dass jemand zu Ihnen kommt, äh...

A: Hm

L: Wenn Ihre Mutter nicht gerne weggehen würde, und dass Sie mindestens die Erlaubnis Ihrer Mutter kriegen, dass jemand mal kommen kann, und...

A2: Hm, ja, darum geht es eigentlich auch. Des, äh...

L: Ja, Zwangsanweisung, in Ihrem Fall schwierig, nicht? Zwangsanweisung, man kann auch sagen, Gott sei Dank, werden heute, äh, unter sehr begrenzten mit immer nur gemacht hat. Eigentlich, finde ich, jemand

7) 인용문에서 A는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해 온 사람, L은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사람을 대신하는 약자이다. 대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중간 생략을 의미한다. 밑줄친 부분은 서로 말이 겹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행해진 대화를 전사하는 방식은 비언어적, 언어수반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 매우 복잡하고 상세해질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가장 간단한 전사방식을 사용하였다.

selbst oder Fremden geführendes.

A: Hm

L: Und das ist Ihre Mutter durchaus im Moment nicht. Also durfte diese Möglichkeit schwierig sein.

A: Hm

L: Was sicher eher geht, ist, dass Sie Ihre Mutter wirklich bitten, das ist auch eben fuer die anderen Verbindeingnag für sie also ihren Sohn wichtig wäre, dass es so ein Gespräch mal geben kann, und sicher nach dem Gespräch selber sehen kann, wie sie darüber denkt.

A: Ja, genau das hatte ich auch eigentlich vor.

위의 대화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상담자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대화를 시작하는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자신의 의도를 상담원에게 직접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을 뿐더러 상담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상담목적과 직접 상관없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장황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담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즉 그라이스의 협력이론으로 보면 모든 격률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담자의 태도는, 그의 진정한 상담의도를 제쳐 놓고 본다면 충분히 협조적이다. 모든 상황을 매우 자세히, 처음부터 순서에 맞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모든 상황은 올바른 상담을 위해—그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꼭 필요한 만큼 정보적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상담 목적에 비추어 판단할 때에는 협력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상담원의 대화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역시 협력의 원칙과 그에 따른 모든 격률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담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방영되는 전화상담의 특징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능하면 짧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상담목적은 빨리, 간결하게 전해들어야만 한다. 위의 대화는 보통의 전화상담대화의 두 배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도 마지막까지 상담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끝나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대화를 분석해 보면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의 적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협력원칙은 실제 대화에서 적용할 때에는 그라이스가 제안한 격률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수정, 보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협력이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정도로 정해질 수 있는 것임을 위의 대화는 분명하게 보여 준다. 즉 어떤 화자의 어떤 입장에서 협력도를 정의하는냐에 따라 협력적이나 아니냐가 구분될 뿐더러 협력의 정도도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즉, 협조적이나 아니냐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협조적이나라는 판단기준이 더욱 유효하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상담자는 주로 상담원의 말에 맞장구를 칩으로써 상담원이 적절한 상담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돕는다. 상담대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이 담화단계에서 상담원이 추구하는 목적은, 되도록 간결하게 상담내용을 전달하고, 상담자로부터 적어도 표면적인 동의와 감사를 이끌어 낸 다음 대화를 종결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예문보다 앞서 이루어진 담화단계에서 상담자는, 상담원이 이러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낮은 협력도를 보인다. 상담자로서는 자기 자신의 대화목적에 도달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자체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가 강제입원될 수밖에 없는 문제상황에 처해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알고 싶어하지만 상담원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해서 대화목적에의 도달 정도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는 상담자가 대체로 상담원이 자신의 대화목적에 달성해 가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담자가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처음에 설정했던 대화목적에 일부 수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를 계속할 것을 포기하고 현재 획득한 정보와, 자신이 지금까지 상담 대화를 통해 도달한 감정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성취하고자 하는 대화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상담원이 자신의 대화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대화를 끝내고자 한다. 대화를 끝낸다는 것은 그 자신이 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국지적 담화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상담원에게 협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국지적 담화목적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화참여자의 국지적 담화목적이 경쟁적이지 않은 경우 참여자 모두에게서 이와 같이 높은 협조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협조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지는 부분적인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위의 예문에서는 상담자가

“Hm, ja, darum geht es eigentlich auch. Des, äh...”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가 상담원의 국지적 담화목적 달성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경우 상담원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자신의 담화목적에 접근해 가고,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국지적 담화목적에의 도달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생각될 수 있다. 위의 예문을 예로 들어서 풀어 말하자면, 상담원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상담자의 문제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상담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발화에서 상담자는 상담원의 말에 일정부분 동의를 포함으로써 이 대화를 종결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협력하고 있으나, 단순히 맞장구를 치거나 동의를 표시하는 다른 발화에 비해 낮은 협력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또 상대의 목적과 그 달성도를 추정해 가면서 대화하고 있는 한 어떠한 발화도 완전히 비협력적이지 않다. 그 발화를 통해 자기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한 모든 발화는 협력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혀 비협조적이라고 정의될 수는 없다. 협력의 정도 내지는 협조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대화상대자의 평가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의 대화 상황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대화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은 이 협력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담화에서, 위의 예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 전 단계의 담화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협력도에 대한 상담원의 평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한 “높은 협력도”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상담원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즉 상담자는 상담원이 강제입원의 당위성에 동의해 주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즉 상담원과 상담자 자신간의 인지적 입장차이 kognitive Perspektivendifferenz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노력은 자신이 처한 딱한 상황과 신경쇠약증이 있는 어머니의 다소 기이한 행각을 끝없이 나열하는 행태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다. 그는 이미 상담자의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입지적 입장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상담자의 노력을 잉여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상담자의

정보제공의 노력은 따라서, 적절한 단계에서 상담내용을 인지시키고 대화를 성공적으로 종결하고자 하는 상담원의 대화목적에 기여하지 않고, 높은 협력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대화에서 상담원과 상담자 모두는 상대에게 만족할 만큼 협조적인 대화태도를 포기한 채로 대화를 끝맺게 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대화상황에서 이러한 대화상대를 떠올리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한 높은 협조도를 상대가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비협조적이고 달갑지 않은 대화상대로 남게 되는 예는 그리 드물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 실제 행해진 대화를 전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각자 상이한 목적을 가진 대화참여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언화행위들을 연관성있게 하는 것은 그라이스의 이론대로 상대가 협력의 원칙을 알고 또 지키고 있으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상대가 알고있다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이 때의 협력은 그러나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협조적, 혹은 협력적”인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밝혔다. 또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라이스가 가정한 대화격률에 의거한 협력적인 언어행위와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도 논의되었다.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대화행보들(Gesprächszüge)에 연관성을 부여하고 상위구조가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협력 개념은 화자의 역할 뿐 아니라 청자로서의 역할, 다양한 대화상황에서 각기 다르게 실현되는 협력의 형태, 목적을 가진 인간행위로서의 담화의 행위이론적 고찰을 포괄함과 동시에 담화참여자들간의 강도높은 상호작용과 타협의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라이스의 대화격률이나 지금껏 그 대안으로 행해진 제안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만족스럽게 포괄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라이스의 협력개념에 기초하여, 실제 대화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격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상대방이 자기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우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사실 격률이라기 보다 협력의 다른 표현같이 보일 정도로 포괄적이지만, 이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개별 항목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작업은 차후로 미루겠다. 상대방의 목표달성에 돕는 다라는 격률을 설정한다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혹은 고의적으로 상하게 하도록 하는, 그라이스의 대화격률에 포괄되지 않으나 실제 대화를 성공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협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각기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와 일정부분 협력을 하는 변증법적인 상호작용과 타협을 협력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그라이스의 협력원칙을 행동이론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보았다. 협력원칙은 의미의 사용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많은 이론과 그 응용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가설이다. 의사소통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대전제로부터, 발화를 이해하고 일관성있게 구성하는 원리들이 도출되어 나온다는 이 원칙은 얼핏보아 이기적인 본성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행위원칙과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수정제안을 받아왔다. 그러나 협력원칙은 인위적으로 고립시켜 고찰하는 대화가 아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 즉 특정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공동체 내에서 항상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복잡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담화참여자들에 의한 구체적 의사소통을 대상으로 하여 고안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하고 항상적으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전제하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서로 협조하게 되는 과정을 행위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해보았다. 즉, 일회적인 만남에서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최대이익이라는 목적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지만 — 일회적인 죄수 딜레마 — 실제 대화상황에서 상대가 되는 사람은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후의 만남까지 생각해서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반복되는 죄수 딜레마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이 글에서는 게임이론적 토대에 입각하여 소위 “눈에는 눈” 전략이 가장 유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였지만, 실제 대화상황에서의 전략은 그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고, 또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죄수딜레마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서 도출된 협력의 테제를 설명하는 데에 논문의 많은 부분을 할당한 것은, 담화를 참여자들간의 협력과 타협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향후의 연구에 뒷받침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밝힌다. 앞으로 이어질 연구에서는 담화참여자들이 각

자의 담화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상대와 협력, 타협하는 과정이 담화 전체의 구조와 국지적인 담화 흐름을 결정하는 양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양한 예를 통해서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딜레마가 시간적으로 반복되는 상황만을 설정하였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욱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가 전략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나의 현재의 담화상대자는 비록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지금의 만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상대자와의 직전 만남만을 계산에 포함하는, 반복적인 죄수 딜레마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협력을 원칙으로 한 의사소통 상황이 예견되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 현재의 대화상대자와의 의사소통 상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평판”이라고 잠정 정의하면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찰을 중심과제로 하여 실제 담화의 분석에 있어 보다 심화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Fritz, Gerd (1994): Formale Dialogspieltheorien. In: Fritz, G./ Hundsnurscher, F. (Hrsg.) (1994): Handbuch der Dialoganalyse, Niemeyer, Tuebingen.
- Grice, H. P. (1967): Logic and Conversation. In: Davidson, Donald/ Harman, Gilbert (Hrsg.) (1975): The Logic of Grammar,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 Harras, Giesela (1983): Handlungssprache und Sprechhandlung, de Gruyter.
- Hofstadter, Douglas R. (1998): Tit for Tat :Kann sich in einer Welt voller Egoisten kooperatives Verhalten entwickeln? In: Spektrum der Wissenschaft, Digest: Kooperation und Konkurrenz.
- Kant, Immanuel (1996): Kritik der reinen Vernunft Bd 1. Suhrkamp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 Levinson, Stephen C. (1994): Pragmatik. Ins Dt. Uebers. von Ursula Fries. 2., unveraenderte Auflage, Tuebingen, Niemeyer.

- Naumann, Bernd (1994): Ueberlegungen zu einem Dialogbegriff als Handlungsspiel: Gestik und Mimik im Gespraechsanalyse. In: Weigand, Edda (Hrsg.) (1994): Concept of Dialogue, Niemeyer, Tuebingen.
- Ridley, Matt (1997): The Origins of Virtue: human instincts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Viking Penguin.
- Sabine, Streeck (1999): Dominenz und Kooperation in der neuropaediartrischen Sprechstunde. In: Bruenner, Giesela/ Fiehler, Reinhard/ Kindt, Walther (Hrsg.): Angewandte Diskursforschung, Bd 1: Grundlagen und Beispielanalysen, Westdeutscher Verlag.
- Schroeder, Peter (1994): Perspektivendivergenzen in Beratungsgesprechen. In: Nothdurft, Werner/ Reitemeiner, Ulrich/ Schroeder, Peter (1994): Beratungsgespraech: Analyse asymmetrischer Dialoge, Tuebingen, Narr.
- Sperber, D./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Zusammenfassung

Das revidierte Gricesche Kooperationsprinzip

Lee, So-Yong(Seoul National Univ.)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das Gricesche Kooperationsprinzip und die dazu gehörenden Maximen unter das Perspektiv der allgemin menschlichen Handlung zu revidieren. Vor allem wird in Frage gestellt, ob die Beteiligten an einem Gesprächsgeschehen unter sich in Wirklichkeit kooperieren. Um die Hypothese, dass die Gesprächsteilnehmer in der zugrunde liegenden Interaktionsebene kooperieren, zu bestätigen, wird auf das sogenannte iterierte Gefangenedilemma rückgegriffen. Im Anschluß daran wird ein authentisches Gespräch besonders in Hinsicht auf kooperative, sprachliche Interaktionen analysiert. Durch dieses empirische Analyseverfahren manifestiert sich, dass die Griceschen Kooperationsmaximen auf eine konkrete Gesprächssituation revidiert anzuwenden sind, denn in den verschiedentlich realisierten Gesprächen das Gesprächsziel nicht als auf maximal effektiven Informationsaustausch eingeschränkt betrachtet werden kann.

[검색어] 담화분석, 그라이스의 협력원칙, 담화목적

Gesprächsanalyse, das Gricesche Kooperationsprinzip, Gesprächsziele

이소영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420호

balkon@hanmail.com